

문화재 해설 (文化財 解説)

- 一. 國寶 제127호 三陽洞金銅觀音菩薩立像
- 二. 國寶 제128호 金銅觀音菩薩立像
- 三. 國寶 제129호 金剛菩薩立像
- 四. 國寶 第130號 善山竹杖寺址五層石塔
- 五. 重要民俗資料 第5號 江陵船橋莊

<文化財課 提拱>



삼양동금동관음보살입상 일구

삼양동금동관음보살입상(三陽洞金銅觀音菩薩立像) 일구(一軀)
국보(國寶) 第127號
소유(所有) 국유(國有)
소재지(所在地)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규모(規模) 고(高) 20.7cm 불상(佛像) 17cm
시대(時代) 삼국시대(三國時代)

이 신상(新像)은 1967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城北區) 삼양동(三陽洞) 산 108번지 박용출(朴龍出)씨 가옥 후측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그 직후 동씨의 신고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었으며 현재 국립박물관에 진열되었다.

출토장소는 삼양동(三陽洞)의 동서(東西)로 긴 계곡(溪谷)을 따라서 높이 약 2백미터 되는 뒷산 중복(中腹) 1계곡 높은 대지(臺地)인데 옛부터 「불당(佛堂)골」이라 구전(口傳)되어오는 고대의 작은 절터로 추정되었다.

약 7년전에 이 대지(對地)에 정착한 박씨가 하수도를 파다가 발견 하였다는데 발목에 작은 상처(傷處)를 입은 이외는 거의완전하게 수습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금색이 아직도 찬란한 이 금동상은 연화대좌위에 직립하였는데 불신(佛身)과 이 대좌(臺座)는 일주(一籌)되었으며 이외에 두광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 먼저 대좌(臺座)는 당대봉상의 다른 유례에서와 같이 낮고 둥근 원좌(圓座)인데 그 둘레에는 가늘고 끝이 뾰족한 단판(單瓣)연화 12엽을 들렸으며 그위에 족좌 또한 낮고 매우 좁다.

이같은 대좌위에 직립하고 있는 이 보살상은 배를 내밀면서 뒤쪽으로 몹시 기울어진 자세를 하였고 측면에서 보아 매우 편평(扁平)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면(前面)만을 위주로 삼아 조각하던 고대의 솜씨를 잘 나타내고 있다.

장신판상(長身板狀)의 불신(佛身)에는 머리위에 높은 삼면고관(三面高冠)을 썼으며 보발(寶髮)은 양견(兩肩)위에 이르러 연판문(蓮瓣紋)으로 매듭하고 있다.

삼양동금동과음보살입상



<page 185 그림(1)>



<page 185 그림(2)>

긴 상호(相好)에는 용기된 특색있는 두눈이 근엄한 인상을 풍기며 높은 코와 작은입 그리고 입가의 미소등 근엄한 속에서도 온화한 동안(童顏)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목에는 주름이 없고 가슴에는 목걸이가 장식되었다. 천의(天衣)는 부드러운 곡선을 보이는 두 어깨에서 수하(垂下)되어서 상하(上下)에서 2단의 U자형(字形)을 그리며 다시 두손을 걸쳐서 신측(身側)에 이르고 있다.

또 군의(裙衣)는 복부(腹部)에서 주름을 마련하면서 두발위까지 이르렀다.

우수(右手)는 직각(直角)으로 들어서 마개와 굽까지 달린 아름다운 정병(淨餅)을 들었으며 좌수(左手)는 이보다 높이 들어서 제1,2지만을 위로 세워 보주(寶珠)라도 들었던 모양을 하였는데 양수(兩手)나 천의(天衣)는 신부(身部)를 고조(高彫)의 기법(技法)을 보인다.

이에 비하여 배면은 평판(平板)을 이루고 천의(天衣)와 그 밑에 의상(衣裳)에는 가는 음각선(陰刻線)을 그었을 뿐이다.

상형(像型)과 보관정면(寶冠正面)에 새겨진 화불좌상(化佛坐像)이나 우수(右手)에 들은 정병(淨餅)등에서 미루어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로 추정되는바 당대의 신앙에서 미루

어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불상이 보이는 위와같은 양식이나 전면(全面)을 위주(爲主)하면서 머리와 양수(兩手)등이 과대(過大)하여 균형이 잡히지 않는 비사실적(非事實的)인 기법(技法)과 고졸은화(古拙溫和)한 작풍(作風)에서 그 연대를 6세기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삼국(三國)시대의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중 어느나라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신중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수도인 서울시내에서 이같은 가장 오래고 또 우수한 고대조각의 걸작품이 나타난 사실은 겨하할 만 하였다. 1963년에 경남 의령(宜寧)의 심산중(深山中)에서 출토(出土)된 고구려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像)(연가(延嘉)7년명, 국보(國寶) 119호)와 더불어 해방후(解放後) 새로 얻어진 지보(至寶)로서 우리나라 고대(古代)미술사에 빛나는 자리를 차지할 것이 틀림없다.

금동관음보살입상(金銅觀音菩薩立像)

국보(國寶) 제(第)128호(號)

소유(所有) 차명호(車明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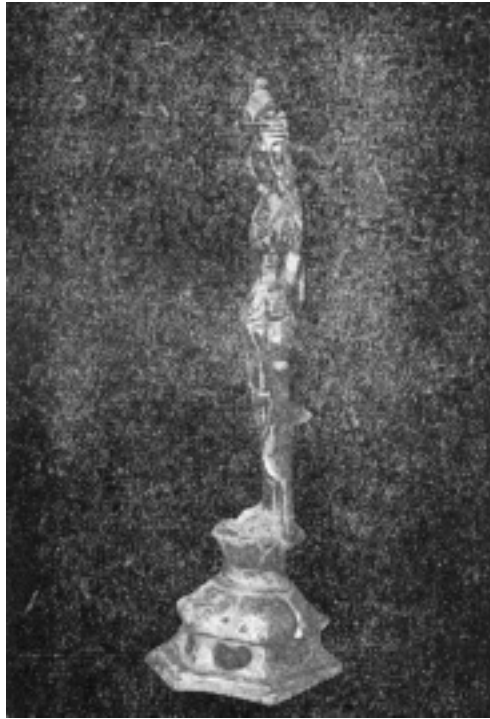
소재지(所在地) 서울特別市 중구(中區) 충무로(忠武路) 2가(街) 2-20

규모(規模) 고(高) 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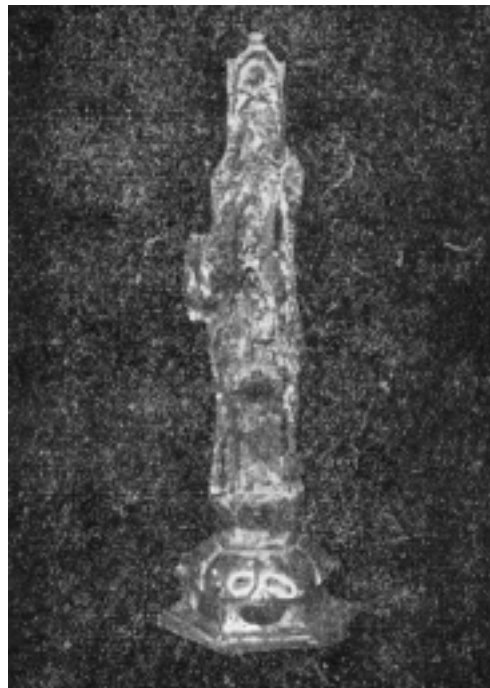
시대(時代) 신라시대(新羅時代)



<page 186 사진(1)>



<page 186 사진(2)>



<page 186 사진(3)>

해방후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국유나 사유문화재(寺有文化財) 또는 매장문화재(文化財)의 조사와 지정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성과가 있다. 이에 비하여 민간에 소장되고 있는 사유(私有)문화재(文化財)에 대하여서는 그같은 주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같은 의미에서 1968년 민간소장인 고대(古代)불상 2점(點)이 모두 국보로 지정된 것은 다행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충남 공주읍에서 동남(東南)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절터에서 출토 되었다고 전하는 높이 10센치미터에 불과한 이 금동소상은 비록 작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국가중보가 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까닭은 삼국중 백제국토에서 출토된 불상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의 하나가 될뿐 아니라 연대가 매우 오래되었 우리나라 초기 불상조각사 연구에 막중한 자료를 삼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좌까지 구비하였을 뿐 아니라 각부에 파손이 없고 황금찬란한 옛모습을 오늘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또한 다행한 일이다.

먼저 대좌(臺座)는 6각형(角形)을 이루고 비교적 높는데 넓은 단판(單板)의 앙복연화좌(仰伏蓮花座) 밑에는 다시 각면마다 안상(眼象)이 뚫여있다. 이위에 장신(長身)의 불신(佛身)이 직립(直立)하였는데 조각(彫刻)은 전면(前面) 뿐이요 후면(後面)에는 원래 개판(蓋板)이나 두광(頭光)을 달았던 방형(方形)의 못만이 남아 있을 뿐 전면(全面)에 푸른 녹이 덮여 있다. 이같은 점도 또한 이 불상을 오랜 연대로 추정케 하는 특색이 되겠다. 다음에 불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대적 특색을 지적할 수가 있다. 머리에는 3면에 낮은 반원형(半圓形)의 화문(花紋) 보관(寶冠)을 썼으며 두정(頭頂)에는 높은 보계(寶髻)를 마련하였다 장단형(長短形)의 상호(相好)에는 융기(隆起)된 양안(兩眼)에 큰 코와 상진(上唇)이 두터운 이른바 양월형(仰月形)의 입을 보이고 삼도(三道)의 각선(脚線)은 없다. 보발(寶髮)은 양겨위에 풀어져서 삼조(三條)를 이루었으며 가슴에는 중앙에 크고 둥근 화판(花板)을 달은 목거리를 장식하였다. 천의(天衣)는 신부의 하부(下部)에서 U자형(字形)을 이루고 다시 양수(兩手)에 걸쳐서 양신측(兩身側)을 따라 길게 대좌위에 이르고 있으며 다시 전신(前身)에 걸친 영락(瓔珞)이 복부(腹部)중앙에서 교차되고 그 중앙에는 둥근 화문(花紋)의 원환(圓環)을 달았다. 이같은 영락장신(瓔珞藏身)의 방식은 중국의 고식(古式)을 따르는 것이나 우리나라 삼국시대 금동불상중에서도 그 유품을 지적할 수가 있다. 우수는 들어서 오지로서 마개와 넓은 굽이 구비되고 목이 긴 정병을 들었으며 좌수는 그대로 내려서 천의(天衣)를 잡고 있다. 상반신(上半身)은 나체이며 허리밑으로 군의(裙依)를 입었으나 의첩(衣摺)의 각선(脚線)이 분명(分明)하지는 못하다. 전신에서 고졸청아한 기풍이 풍기고 있으며 근엄한 상호에 비하여 세장한 키에서 오는 인상은 숙련된 솜씨를 짐작케 한다. 이같은 점에서 오늘 일본 법륜사에 전래하는 목조백제관음과의 친연(親緣)을 이곳에서 지적할 수도 있다. 1968년 2월 서울특별시 삼양동에서 발견된 금동 보살입상과 더불어 3국시대 6세기(世紀) 보살상의 대표적인 걸작품이 될만하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2번지 차명호씨 소장)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일구(一軀)

국보(國寶) 제(第)129호(號)

소유(所有) 차명호(車明浩)

소재지(所在地)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2가(街) 2-20

규모(規模) 고(高) 54.5cm

시대(時代) 신라시대(新羅時代)



<page 187 사진>



<page 188 사진(1)>



<page 188 사진(2)>

우리나라에는 고대의 많은 금동소상(金銅小像)이 일찍부터 지하에서 발견되었거나 또는 금강산 유점사의 53불(佛) 같이 옛부터 전래하여 왔었다.

그리하여 木,土의 고대거상(古代巨像)이 전하지 못하는 공백(空白)을 메꾸어 주었으며 박물관뿐 아니라 내외인(內外人)에 의한 수집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기왕에 알려진 이같은 소금동상(小金銅像)이란 거의 1척미만(尺未滿)의 것뿐으로서 그 이상의 작품이란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1968년 민간에 이와같이 큰 작품이 소장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서 국보로 지정된 것이다.

이 신상은 현재 좌대를 잃었으며 또 보관(寶冠)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 두 불상(佛像)은 원래 모두 별조(別造)되어서 上下에 따로 장엄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좌수지(左手指)가 일찍이 결락(缺落)되어서 원형(原形)을 찾을수 없게 된 것도 애석한 일이다.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인데 현재(現在) 도금(鍍金)의 흔적을 약간 찾을수 있을 뿐 동질(同質)의 바탕을 들어 내어서 적갈색(赤褐色)을 이루고 있다.

상기(上記)한 바와 같이 보관(寶冠)이 없기 때문에 보계(寶髻)만이 우뚝이 노출되었으

며 넓은 상호(相好)에는 가늘게 뜬 양안(兩眼)과 코와 작은 입에 대하여 양이(兩耳)만은 길고 하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에는 3조의 각선(脚線)이 보이며 넓은 가슴에는 右에서 좌하(左下)로 서행(徐行)하는 조백(條帛) 한줄이 주름을 잡고 마련된 이외는 나체를 보이고 있다.

천의(天衣)는 몸의 양측을 따라서 수하되었는데 한가닥은 상하(上下)에 완천(腕釧) 장식의 한 우수(右手)로서 잡았으며 다른 가닥은 직각으로 굴절한 좌수(左手)에 걸쳐졌으나 하단(下壇)에서 절단(切斷)되었다.

군(裙衣)의 결뉴(結紐)는 아니 보이나 복부(腹部)와 양각(兩脚)에서 동호(同弧)의 조선(條線)으로써 접벽(摺壁)을 나타내었는데 그 기법(技法)이 또한 세련되고 유려(流麗)하다. 각부(各部)에는 사실적(寫實的)인 표현(表現)이 이루어졌으며 상호(相互)의 풍만 웅위(豐滿雄衛)함에 대하여 신부(身部) 또한 당당한 체구(體軀)를 나타내고 있다. 배면(背面)에는 아무런 조문(彫文)이 아니 보이고 오직 두부(頭部)에 원공(圓孔) 하나와 배면(背面) 上下에 타원장공(橢圓長孔) 각일(各一)이 뚫여 있고 또 上下에 못이 하나씩 있어 원래 광배(光背)를 장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보살입상(菩薩立像)은 상기한 바와 같이 크기에 있어서 신라 금동소상(金銅小像)중의 으뜸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상(像)은 원래 독존(獨尊)으로 주성(鑄成)된 것이 아니라 3존을 이루었던 양협시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조성연대는 신라통일기로 추정되는바 폐사지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할뿐 그 유래를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2번지 차명호씨 소장)

선산죽장사지오층석탑(善山竹杖寺址五層石塔)

국보(國寶) 제(第)130호(號)

소유(所有) 국유(國有)

소재지(所在地) 경북 선산군 선산면 죽장동

재료(材料) 화강석(花崗石)

규모(規模) 전고(全高) 약(約) 10m

시대(時代)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page 189 사진(1)>



<page 189 사진(2)>

경북 선산읍에서 서쪽으로 약 오리 죽장도요이 북쪽 산골에는 큰 절터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권 39 선산도호부(善山都護部) 불우(佛宇)조에 비봉산(飛鳳山)에 죽장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일선지(一善志)에도 그같이 보이고 있어 그 이름과 장소는 틀림이 없다. 현재 이곳에는 해방후에 신설된 법전사(法轉寺)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곳 저곳의 건물터에는 옛날 규모와 장엄을 말하는 초석과 기와등이 널려있고 남(南)쪽에는 당간지주(幢竿支柱)의 단편(斷片)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 중심인 옛자리에 서있는 거대한 화강석 5층석

탑이다.

이 석탑은 높이가 약 10미터가 넘는 탑으로서 경북 의성군 의성면 탑리동의 5층석탑(국보77호)과 먼저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회성탑의 단층기단과는 달리 2층 기단위에 세워졌는데 현재 상층기단의 석재가 산일되어서 원형을 잃었고 탑정(塔頂)에 이르러서는 노반(露盤) 1석을 남겼을 뿐 그위의 상륜(相輪)은 찾을 수가 없다. 먼저 기단부의 수법은 아래로부터 장대석(長大石)으로서 지대(地臺)를 삼고 사면을 돌아 여러장의 면판석(面板石)과 얇고 경사진 갑석(甲石)으로 덮였으며 다시 그 위에는 2단으로 괴임돌을 놓았다. 상층기단 또한 그와 비슷한 방식을 따랐을 것이나 붕괴되어 오직 내부의 잠석만을 노출 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다시 그위에는 거대한 탑신을 받기위한 2단의 받침돌이 놓이는데 이같은 2층기단의 수법은 신라통일후의 방형석탑에서 널리 사용되던 방식이기는 하나 그 짜임과 부분양식이 다른 것은 이탑의 건립연대가 신라중기 이후로 내료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탑신부도 기단과 같이 다수(多數) 석재(石材)로서 조립되었는데 크기와 수효가 각기 다르다. 먼저 초층(初層)탑신은 대소(大小) 6매석(梅石)으로 조립되었는데 우주(宇宙)의 표현이 없는 것이 특이하다(이상 각층이 모두 동일하다)또 이곳 남면중앙(南面中央)에 감실이 마련되었는데 오늘날 내부는 비어있고 문비(門扉)도 아니보인다. 그런데 이탑에 있어서 가장 특색이라고 할 점은 옥개의 수법으로서 각층이 모두 추녀빌의 층단받침 뿐 아니라 그위의 낙수면에 이르기까지 이같은 층단 수법을 따르고 있는 점이다. 6단을 이루었고 그위의 받침은 1단이 많아서 7단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특이한 양식이야말로 이 석탑이 신라에서 발달한 이른바 모박석탑(模博石塔) 양식을 따라서 조성된 것임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인 의성 영양 안동과 경주등지에서 한때 유행한 이 양식의 계열의 초기작으로 비정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상기한 의성 오층석탑(五層石塔)과 같은 짜임새는 없으며 또 그보다도 시대가 떨어지기는 하나 신라 8세기 후반에 이르러 조성된 모박계석탑(模博系石塔)으로서는 그 규모나 수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작(秀作)이 될 만하다.

강릉선교장(江陵船橋長)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 제5호

명 칭(名稱) 강릉(江陵) 선교장(船橋莊)

종 별(種別) 주택(住宅) 건축(建築)

소유지(所有地) 강릉시(江陵市) 운정동(雲亭洞)사삼일번지(四三一番地)

건 평(建坪) 삼일팔평(三一八坪)

남(南)쪽 행랑(行廊)채에 대문(大門)이 들어 있다. 서(西)편으로 사랑(舍廊)채에 출입(出入)하는 대문(大門)은 소슬대문(大門)이다. 안채는 東편에 있어서 엄연(奄然)하게 구분(區分)되어 있다. 제일 오래된 건물(建物)은 안채의 주옥(主屋)이다. 그 왼편 전면(全面)에는 동별당(東別堂)이 있다. 오른쪽 후면(後面)에는 서별당(西別堂)이 있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안채 주옥(主屋)의 평면(平面)은 ㄱ자형으로서 동(東)쪽 끝이 부엌이 되고 건너방은 서(西)쪽에 있다. 건넌방은 남(南)쪽 전면(全面)에 아궁이를 두고 다시 그 앞으로 두 칸을 이어 붙였는데 찬간(饌間)으로 사용(使用)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행랑(行廊)채에 이르는 사이에는 담을 쌓서 막았으며 안뜰을 구획(區劃)하고 있다.

한편 찬간(饌間) 끝에서 부티는 직각(直角)으로 꺾어져서 행랑(行廊)채와 병행하여徐行하는 내고간(內고간(庫間))이 있으며 사간(四間)을 두고 북절(北折)된다. 그 절(折)된 부분(部分)에 중문(中門)이 있다. 중문(中門)에서 안쪽에 들어서면 서별당의 앞뜰이 된다. 중문 바깥쪽에는 넓은 뜰을 전면에 두고 사랑채인 열화당이 위치하고 있다.

건물(建物)의 구조형식(構造形式)

(1) 열화당(悅話堂)

사랑채 건물을 열화당(悅話堂)이라고 이름한다. 높은 석축(石築)위에 서 있다. 건물(建物)의 西쪽 半은 넓은 대청(大廳)으로 만들었다. 동반부(東半部)는 사개(四個)의 방(房)으로 구분(區分)하였는데 그중 동남우(東南隅)에 위치(位置)한 방은 남면(南面)으로 한간살을 연장(延長)하여 다락마루로 꾸미고 있다. 나머지는 온돌방(溫突房)들이며 각각 한간씩의 넓이다. 대청(大廳)의 넓이는 사간이다. 대청(大廳)과 중앙(中央)의 온돌방(溫突房) 전면(全面)에는 빗마루가 있어 왕래(往來)하게 된다. 측면(側面)과 후면(厚免)에 걸쳐서는 쪽마루가 있으며 난간(欄干)을 돌리고 있다. 마루 밑으로 석축(石築)까지 사이에는 벽잠으로 가리고 있다. 출입(出入)은 빗마루에 가설한 계단(階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部分)에 대한 양로(兩露)를 가리기 위하여 대청(大廳)앞에는 별조 차양(遮陽)이 부설(附設)되어 있다. 후일(後日)에 와서 구한국말(舊韓國末) 때 양풍을 본따 마련한 시설(施設)이다.

대청(大廳)안에 들어서면 천장이 우물 천장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보통으로는 보기 드물다. 다시 주위(周圍)의 경사(傾斜)된 부분(部分)에는 판자(板子)를 붙이고 빗천정으로 만들고 있다. 대량(大樑)은 원목(原木)을 그대로 다듬어 용재(用材)를 사용(使用)하였으나 모두가 제법에 맞는 솜씨는 아니다. 기둥은 각주(角柱)를 사용하고 그 위에는 주료(柱料)를 얹었을 뿐이다. 원래(原來)는 초익공식(初翼工式)으로 수설(手設)을 배치(配置)하였던 것 같으나 현재(現在)는 건물(建物) 후면(後面)에 만 남아있다. 매우 빈약(貧弱)한 수설(手設)이다. 전면(全面)에서는 수설(手設)을 없애고 그 위치(位置)에 별조 차양(遮陽)의 부재(部材)를 결합(結合)시키고 있다. 지붕은 팔작 지붕이며 겹처마이다.

(2) 안채



<page 190 사진>

안채 가옥(家屋)은 평면(平面)이 ㄱ자 집이며 팔작(八作)지붕의 오량(五樑)집이다. 대청(大廳)을 중심(中心)으로 해서 동쪽에 안방이 있고 서쪽에 건넌방이 있다. 정면(正面)에서 보면 안방이 2칸(二間), 대청(大廳) 2칸(二間), 건넌방 1칸(一間)의 규모(規模)다. 대청(大廳)과 안방 전면(全面)에는 툇마루로 통하게 되며 이 부분(部分)은 개방(開放)되어 있다. 안방은 중간(中間)에 미닫이를 두고 좌우(左右)의 두방으로 구분(區分)하였는데 뒤쪽은 각각 좁은 걸방과 반침(半寢)이다. 건넌방 뒤에도 역시 같은 크기의 반침(半寢)이 달려 있다. 건넌방에서 저면(底面)으로 꺾어지는 채는 아궁이가 있는 1칸(一間)과 그 앞에 찬간(饌間)으로 사용(使用)된 2칸(間), 그리고 다시 좁은 허간을 두고 끝난다. 아궁이 위는 다락으로 만들었으며 찬간(饌間)은 한간이 온돌이고 또한간은 마루방이다. 한편 부엌은 안방을 지나 동쪽 끝에 위치하였는데 그 전면(全面)에는 동별당(東別堂)이 자리 잡고 있다. 부엌의 출입(出入)은 이 동별당(東別堂)과의 사이에 달아 놓은 門을 이용(利用)하게 된다.

각주(角柱)에 황포를 사용치 않고 직접(直接) 납도리를 얹은 간소(簡素)한 주택건축(住宅建築)이다. 도리 밑에는 소로도 받치지 않았다. 처마도 순양(淳樣) 없는 훗처마이다. 대청(大廳)에서 쳐다볼수 있는 옥개(屋蓋) 가구부(架構部)도 간단(簡單)한 동자주형(童子株形), 체형의 태공을 配置하였을 뿐이다.

(3) 동별당(東別堂)

팔작(八作)지붕 겹처마의 납도리집이다. 안채의 동(東)쪽 전면(全面)에 위치(位置)하였으며 이층으로 된 높은 석축위에 서 있다. 넓은 대청(大廳)을 양가운데 두고 서쪽은 온돌방(溫突房)이고 동쪽은 그와 같은 크기의 마루방이다. 대청(大廳)은 2칸(二間)이고 좌우방(左右房)은 각각 일간씩이다. 그러나 측면(側面)의 기둥사이 길이는 전면(全面)보다 배반이나 더 길게 잡고 있으므로 방의 넓이는 매우크다. 대청(大廳)과 온돌방(溫突房)앞에는 툇마루가 달리고 있다. 다시 마루방 전면(全面)에는 두칸살의 온돌방(溫突房)이 있어 전체(傳遞)의 평면(平面)은 ㄱ자형이 된다. 대청(大廳) 천장은 종이반자로 꾸미고 있다.

(4) 활래정(活來亭)

대문(大門) 밖으로 선교장(船橋裝) 동구(洞口)에 큰 연지가 있다. 활래정(活來亭)은 그 지반(池畔)에 세워진 정자건축(亭子建築)이다. 지당중(池塘中)에 석주(石柱)를 세워 주위(周圍)에 난간(欄干)을 둘러고 전면(全面)을 개방(開放)할 수 있게 하였다. 따로 한쪽에 채를 꺾어서 온돌방(溫突房)을 두었는데 역시 그 주위(周圍)에는 쪽마루를 두고 난간(欄干)을 둘러고 있다. 팔작지붕 겹처마의 납도리집이다.

유래(由來) 및 연대(年代)

전주인(全主人) 이내번이 개기(開基)한 이래(以來) 당대(當代)인 이기재씨에 이르기까지 칠대(七大)가 거주(居住)하였으며 대대(代代)로 이 지방(地方)에 있어서의 명문(名文) 거족(巨族)으로 널리 알려진 가문(家門)이다. 제일 오래된 안채 주옥(主屋)은當初에 가기를 정하였을때의 建物이라고 전하나 확실치 않다. 사랑채인 열화당(悅話堂)은 순조(純祖) 일오년(서기 1845)에 오은처사 이□(李□)가 건립(建立)한 것이라 한다. 열화당(悅話堂)의 이름은 도연명의 귀거래사중 「열친□지정화(悅親□之情話)」에서 취의한 것이다. 활래정(活來亭)은 상기 오손거사 이구가 순조(純祖) 15년에 세운 것을 그 증손인 이근주(이기재씨 조부)가 현재의 조물을 증건하였다 한다. 매옹의 시에 보이는 「활

수래」에서 그 이름을 본뜬 것이라 한다. 조병영이 택한 「활래정기(活來亭記)」 현대이 있다. 동별당(東別堂)은 약 사십년전(四十年前)에 새로 건립(建立)한 건물(建物)이다.

지정문화재(文化財) 현황표

(1969년 9월 10일 현재)

	국보(國寶)	보물(寶物)	사적(史蹟)	사적(史蹟) 및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무형문화재(文化財)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	계(計)
서울	56	77	18	-	8	11	2	172
부산(釜山)	-	2	-	-	3	1	-	6
경기(京畿)	2	33	15	-	7	1	1	59
강원(江原)	6	35	2	-	13	2	2	60
충북(忠北)	5	16	-	1	8	-	-	30
충남(忠南)	8	50	20	-	8	2	-	88
전북(全北)	3	49	11	-	10	-	-	73
전남(全南)	13	62	12	-	27	2	3	119
경북(慶北)	31	131	68	3	24	1	-	258
경남(慶南)	6	56	37	11	19	8	4	131
제주(濟州)	-	1	1	-	13	-	-	15
기타(其他)	-	-	-	-	14	-	-	14
계(計)	130	512	184	5	154	28	12	1025